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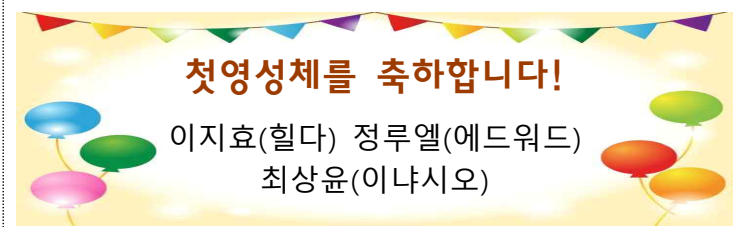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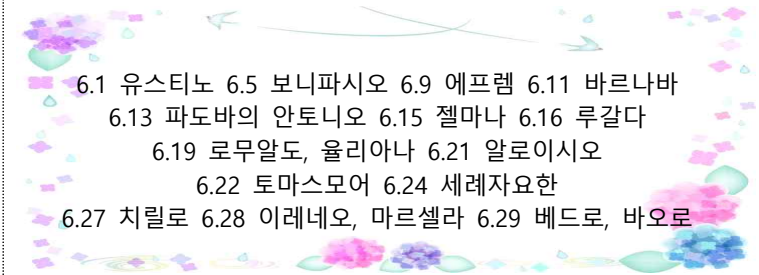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6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 6.1 유스티노 6.5 보니파시오 6.9 에프렘 6.11 바르나바
- 6.13 파도바의 안토니오 6.15 젤마나 6.16 루갈다
- 6.19 로무알도, 율리아나 6.21 알로이시오
- 6.22 토마스모어 6.24 세례자요한
- 6.27 치릴로 6.28 이레네오, 마르셀라 6.29 베드로, 바오로

6월 13일 St. Anthony 축일 본당 일정

축일미사: 8:30am • 9:30am • 11:00am(English)
12:30pm (Kreyol) / 2:00pm (Español)

고해성사: 8:00am – 9:00am /10:00am – 11:00am
1:00pm – 2:00pm

빵 나눔: 10:00 AM–2:00 PM. 31, 32번가 출입구 쪽.
(31번가 담당: 한인공동체)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6/14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James Gannon OFM (작은형제회 미국관구)
7/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이설빈 세례자 요한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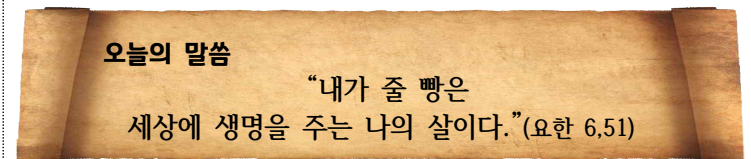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 6/15(월)-6/25(목) 안 마리루시 수녀의 북미주 수녀연합회 연중피정 및 총회 참석으로 사무실을 닫습니다. 성당 관련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삶이다.”(요한 6,51)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옥지 아가다
- 김옥지 아가다 영혼을 위하여
- 김옥지 아가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
- 조정옥 엘리사벳 고경덕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강순기 이레네 평안한 안식을 위해
- 최광빈 마누엘
- 최진영 스테파노
- Richard ABABIO 리처드 아바비오
- 유혁일 헨리 평안한 안식을 위해-기일
- 김승진 리처드 영혼을 위해

생미사 지향

- 성령기도회원들의 영육건강
- 최상윤 이냐시오 첫 영성체 축하
- 박수환 보나벤투라, 김정현 루시아, 손진숙 율리안나 영육 건강
- 양미숙 마리아 가족 건강을 위하여
- 임호
- 유경자 데레사 영육 건강
- 이응희 루카 신부님 사제성화의 날을 맞이하여
- 민재인, 김지영, 최미양 영육 건강
- 황선(데이브), 손성연(가브리엘라), 황태준(니콜라스)
- 김도영 멜라니아
- 전수민 로사리아의 졸업 축하 감사드리며, 영광과 신비를 기원하며
- 문영자 크리스티나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 김리나 막달레나 건강(6/10수술)을 위하여
- 김이 엘리자벳, 민정신 아폴로니아, 유정옥 유스티나 영명축일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온라인 주보의 경우, 하단의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646. 832. 7397 로 연락 바랍니다.
 - "기부" 버튼은 **미국본당에 기부를 원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인공동체로 보내는 교무금은 별도 송금 부탁드립니다.
- A.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체크 보내실 주소 : Luke Lee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우리들의 정성

5월 31일	
교무금	Cash \$ 2,590 윤효숙(50) 김금숙(100) 이영근(200) 구달회(240) 김신욱/정유진(100) 정다경(100) 이규완(200) 진승환(100) 김정옥(300) 안선정(100) 민완준(100) 송명자(100) 김제나(400,4-5월) 유경자(100) 김수현(100) 김승범(300)
	Check \$ 1,000 김종섭(300) 박정자(100) 윤은숙(600,1-6월)
감사헌금	Check \$ 100 박정자
합 계	\$ 3,690
Donation	Cash \$ 300 박기복/박민재(본당교육관)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0대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요한 복음 6장은 빵에 대해 한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길어도 길어서, 평일 미사에 이 장이 복음으로 한 주간 내내 나오면 강론을 준비해야 하는 신부님들이 “빵 주간”이라고 괴로워하시지요. 그런데 이 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영롱하게도,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요한 6,60)라는 제자들의 반응에 관한 구절입니다. 지금 주시는 빵이 당신의 살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거북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말했던 이들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오래 전에 이 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느님을 뵈고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이사 6,5)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로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난다면 저런 반응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내 삶 안으로 뚫고 들어오실 때, 이전의 평탄한 삶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빵을 많이 하신 표징을 보고서는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요한 6,14)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분을 붙잡고 싶어 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도 굳이 따라갑니다. 빵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시고, 더구나 당신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자 거북해하며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요한 6,66) 되돌아갔습니다. 그냥 군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던 이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할 만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신자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식인 풍습으로 알아들었던 고대 로마인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많은 이들이 떠나간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요한 6,67-68).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듣기가 거북하다고 여겨 떠나가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거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그는 남들이 거북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거북하고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 곁에 남는지는 인간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라가면 위험할 것 같은 저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85, 2026. 06월 07일



그림 묵상

빵의 레시피 | ‘이제는 너의 차례’라며, 손바닥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밀떡입니다. 당신의 온 삶이 레시피이고, 빵이 된 기적은 내 감각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비록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을지라도, 절반은 주님의 묵이고 절반은 나의 묵인 성체 성혈의 기적! 밀떡이 성체로 바뀐 첫 번째 기적과, 내가 사랑으로 바뀌는 두 번째 기적이 합해져야 비로소 완성 될 이 미완의 기적이 오늘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1호, 2026년 6월 7일(가해)